

예배 순서

2026년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 (1)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 나는 새벽 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 (2)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련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 (3)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 불이 두렵잖고 창 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뵈기 원하네

후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빛 나는 새벽 별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 가족 중에 (또는 인도자)

성경봉독 여호수아 24:15

15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말씀선포 주님이 우리 삶과 가정에 주인 되게 하소서

한 해 중 가장 풍요롭고, 넉넉한 추석 명절이 되었습니다.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과 같이 우리의 삶과 가정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다사다난한 일들의 연속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면 우리는 넉넉히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1. 가정을 가장 잘 세우는 비결은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시127:1)

하나님의 속성은 전지, 전능, 무소부재, 영원, 불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뉘볼 수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 전지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며 심지어 성경에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자세하게 알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상황에 맞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채워 주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가정을 온전히 맡겨 드린다면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선하심대로 우리의 앞날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 우리는 매순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수 24:15b)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비로소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까지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내 생각과 가치관, 경험을 따라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것인가요? 이번 명절을 계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단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남은 인생 뿐만 아니라 가정까지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이 예비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은혜의 통로를 기대하며 우리 모든 공동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인도자

찬 송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 (2) 아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기도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림으로써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축복 추석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